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오논다가 카운티 소재 테시 플라스틱스(Tessy Plastics)의 3,160만 달러 규모 확장 프로젝트 완료 발표

203명의 신규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공약의 네 배를 달성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ew York Rising)” 사업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논다가 카운티의 맨 뷰런 소재 테시 플라스틱스(Tessy Plastics)의 3,160만 달러 규모 확장 프로젝트가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는 현장의 일자리 창출 목표 공약을 이미 초과하여, 2020년까지 최대 50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존의 추정치를 네 배 이상 달성했습니다. 가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이 기업은 이미 203 명의 신규 정규직원을 고용하고, 뉴욕주에서 지원하는 1,35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이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사업 이전을 고려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래성 있는 산업들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투자한 덕분에 업스테이트 뉴욕의 전체 지역사회가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확장은 센트럴 뉴욕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분명한 사인입니다. 테시(Tessy)와 같이 성공한 기업이 바로 여기 뉴욕에서 계속 성장, 확장 및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미래 성공을 위한 지역사회 건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확장 프로젝트에는 스테이트 페어 블루바드(State Fair Boulevard)에 위치한 기존 공장에 26만 제곱피트의 제조 시설을 추가하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수지 저장 사일로, 원료 처리 시스템, 냉각 장치, 생산 장비의 건설 및 추가뿐만 아니라 시설의 전기 인프라 업그레이드도 포함되었습니다.

테시 플라스틱스(Tessy Plastics)의 Roland Beck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에서 지원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분명히 테시 플라스틱스(Tessy Plastics)가 센트럴 뉴욕에서 확장 결정을 하도록 만든 한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직급별로 필요한 뛰어난 노동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기로 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노동력 이외에도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질 좋은 모든 서비스가 여기에 풍부하여 함께 사업을 하기에 좋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테시 플라스틱스(Tessy Plastics)가 계속 성장하여 센트럴 뉴욕의 멋진 분들을 위한 기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엠페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Howard Zemsky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이 견실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것이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이미 자체적인 고용 목표를 훨씬 초과하여 2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사실은 지역 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며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경제 발전 계획이 탄력을 받도록 해줄 것입니다. 업스테이트를 위한 Cuomo 주지사님의 비전과 노력이 진정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테시 플라스틱스(Tessy Plastics)가 센트럴 뉴욕에서 사업 운영을 지속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엠페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지난 7월에 1,35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1,000만 달러는 자본 보조금(Capital Grant)을 통해 그리고 나머지 349만 달러는 회사가 이미 초과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한 보상으로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을 통해 제공했습니다.

William Magnarell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시 플라스틱스 코퍼레이션(Tessy Plastics Corporation)이 센트럴 뉴욕에 남도록 사업 분위기를 조성하신 Cuomo 주지사님의 구체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회사의 성장은 센트럴 뉴욕이 사업을 하기에 좋은 곳이며 다가올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시 플라스틱스(Tessy Plastics)에 대한 지원과 업스테이트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은 민간 부문과 정부 사이의 협력을 근간으로 하여 견실한 기업들이 오논다가 카운티에서 성장하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1973년에 설립된 테시 플라스틱스(Tessy Plastics)는 정교한 의학 기기를 위한 다양한 제품, 전자 제품,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용 제품 및 포장 제품을 포함한 일상 소비 용품 등을 제조합니다. 회사의 혁신적인 역량을 통해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설계, 제조, 조립 및 유통하고 있으며, 여러 포천지(Fortune) 선정 100대 소비재 기업들이 제조

파트너로 선택한 기업입니다. 테시 플라스틱스(Tessy Plastics)는 확장 투자한 밴 뷰런의 시설 이외에도 센트럴 뉴욕의 엘브릿지에 제조 공장이 있으며 스캐니텔리스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 주와 중국에서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시 플라스틱스(Tessy Plastic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의 활용, 기업가 정신의 강화 및 포괄적 경제 창출 등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이 지역에 거의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